

“씩고 물러지고...” 해남·무안 겨울배추 80~90% 냉해 피해

겨울 한파로 밭동 얼고 뿌리 썩어 수확 포기 ↑
“일부 수확하더라도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겨울 한파로 전남 해남과 무안 등에서 배추 냉해피해가 심각하다. 전체 재배면적의 80~90%에서 배추 밭동이 썩고 물러져 수확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겨울배추 주산지인 황

산면과 산이·문내면 등에서 전체 재배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1684ha에서 냉해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배추의 뿌리가 물러지면서 썩고, 속과 겉잎이 하얗게 말라 수확을 기대하

기 힘든 처지다. 심지어 1월 들어 연이은 겨울한파는 배추 밭동까지 얼리고 녹이길 반복하면서 겉잎을 속이만 알배추마저도 피해가 심각하다. 해남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영하의 기온을 보였다. 배추는 통상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피해로 이어지는데 8일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관측 이래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때로는 눈·비까지 겹쳐 피해를 키웠다.

해남군 관계자는 “배추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뿌리부터 썩어 내다 팔 수가 없다”면서 “웬만한 추위에도 배추의 속은 멀쩡한데 올 추위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무안에서도 월동배추의 냉해피해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다. 환경면과 해제·운남면 등에서 겨울배추 108ha에 걸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평균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배추 속과 겉잎, 밭동이 얼고, 날씨가 풀리면서 물러져

썩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더라도 냉장·보관은 사실상 힘들어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안군 관계자는 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80~9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일부를 수확하더라도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손을 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잠룡’ 이낙연·정세균 여권 텃밭 동시 출격



설명절을 앞두고 여권 잠룡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권의 텃밭에서 민심잡기에 나선다. 9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 총리는 10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제1하수처리장간 이원 중계로 열리는 빛고을에코 연료전지 발전사업 착공식에 참석한다. 또 광주 서구 코로나 선별진료소와 호남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광주형 일자리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잇달아 방문한다.

정세균, 양동시장·글로벌모터스 방문 이낙연, 한전공대부지·애플화전당 일정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형 기업 모델을 구현하는 사업장으로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성패를 주목하고 있다. 정 총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도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첫날 나주 한전공대 부지, 둘째날인 11일에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순천 여순항쟁위령탑 등의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아시아문화전당 방문은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나주와 순천 방문 역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의 일정이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이자, 숙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설 연휴를 앞둔 두 사람의 행보에서 누가 민심을 더 많이 얻을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전통시장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광산구 송정5일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전남도, 설 연휴 ‘고향방문·여행 자제’ 권유

가족·지인 간 만남으로 감염 우려
전남도는 9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며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영어를 포함한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이나 사적인 지인 모임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줄었으나 이동량이 급증한 설 연휴를 앞둔 데다 비수도권의 방역조치도 부분적으로 완화돼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가족·지인 간의 만남이나 지역 간 이동 등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어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유하고 있다. 특히 지역감염 등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어 2월 중순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까지 현재로선 마스크 쓰기가 최고의 백신이다”며 “설 연휴 기간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설 연휴로 다음호 15일자 발행합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력

코로나19 방역에 국뽕대신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희망2지구 상가 상인회



광산구